

## 국어교과의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대한 비판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임 주 탁\*

### 차 례

- |                                   |                       |
|-----------------------------------|-----------------------|
| 1. 서 : 비판의 관점과 목적                 | 3. 고전시가 수용에 대한 대안적 논의 |
| 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대한 비판 | 4. 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어교육의 장에서 고전시가 작품이 소통의 매개로 기능하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의 전제가 되는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해당 작품들은 언어 텍스트 자체가 부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거나(<서동요>, <청산별곡>, <어더 니 일이야~>, <어부사시사>, <송인>), 비교적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더라도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해설이 없을 뿐 아니라(<관동별곡>) 작품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으로는 국어교육의 주체, 특히 교과서를 제작하는 주체가 고전시가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과정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고전시가 연구 주체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작품이 학습자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어 텍스트가 학습자의 조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주석 및 주해 작업과 아울러 연구 부분에서 제기된 이론의 정합성과 적합성을 따지는 검증 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고전시가, 국어교과, 소통, 국어교과서, 서동요,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관동별곡

## 1. 서 : 비판의 관점과 목적

언어는 소통의 매개요 수단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표현하는 이의 언어 체계를 듣거나 읽는 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능력이란 곧 언어를 매개로 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국어 교육은 국어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장은 국어를 매개로 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어느 교과보다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특히 고전시가 작품이 소통의 매개가 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진단이 더욱 우세하다.

언어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소통의 전제가 된다. 학습자는 작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작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작품을 썼을까 하는 의문은 모든 언어 텍스트에 대해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

지 못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이 내가 내뱉는 말이나 쓴 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여도 좋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듣거나 읽는 사람이 나의 진정(眞情)이나 진심(眞心)을 헤아려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말과 글을 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학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국어교육의 장에서 고전시가 작품을 매개로 시도되는 소통 행위는 이러한 기본 가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듯하다. 그러한 사정은 기본적인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언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작품이 학습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고전시가 작품이 국어교육의 장에서 소통의 매개로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대한 비판

고전시가는 한때 국문학의 본령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까닭에 고전시가는 지금까지도 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습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고전시가 작품이 가장 어렵고 흥미도 없다는 반응을 내보이기 일쑤다. 많은 연구자들이 나서서 쉽고 재미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학습자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작품을 이루는 어휘가 생소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어휘가 생소하면 어휘를 풀어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반응이

고 보면, 문제가 어휘 자체에만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현행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0학년 과정에 수용된 고전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할 수 있을 듯하다.<sup>1)</sup>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쓰이는 국어 교과서에는 향가 <서동요>, 고려가요 <청산별곡>, 시조(?) <어부사시사>와 <어더 니 일이야 ~>, 가사 <관동별곡>, 그리고 정지상의 한시 <송인>이 학습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장르별로 골고루 작품을 선정한 듯 보인다. 그런데 각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학습 활동의 내용과 목표가 사뭇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교과서 자체만 두고 보면 이들 작품을 매개로 하는 소통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서동요>는 국어사의 한 부문인 문자(표기법)의 역사를 이해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sup>2)</sup>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작품을 다시 선정한 까닭은 아마도 <서동요>가 향찰로 표기된 향가 작품 가운데 가장 짧은 데다 이미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미 요소는 한자의 뜻을 빌려 쓰고 문법 요소는 소리를 빌려 쓴다는 것은 한자를 이용하는 차자 표기의 기본 원리일 뿐이다. 종합적인 표기 체계로서의 향찰의 표기 원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말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독이 엇갈리고 있는 글자에 대한 해독의 시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아울러 제공되어야 한다.<sup>3)</sup>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습자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1)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고전시가 작품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임주탁, 『옛 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부산대학교 출판부, 2009), 453-486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하)』(주)두산, 2002, 24-27쪽.

3) 현행 중학교 교과서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서동요>는 연구사적으로 합리성이 가장 결여된 양주동 박사의 해독 결과(『고가연구』, 일조각, 1965, 432-453쪽)를 현대어로 옮겨 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광숙, 「무왕 이야기

데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한자와 대비되는 우리말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찰이 앞의 원리를 단순하게 적용한 차자 표기법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선행될 때 비로소 교수자와 학습자는 이전 학년 과정에서 학습한 <서동요>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길을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은 <서동요> 자체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은 아니다. 향찰 표기법을 학습하는 이유가, 단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그보다 우리말의 음가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로 하여금 향찰로 표기된 우리의 문화유산을 스스로 탐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면, 판독과 해독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서동요>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기회 제공이 오히려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향에서 학습 활동이 설계된다면 그런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 <서동요>의 이해와 감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학습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서동요>의 이해와 감상 활동을 생략해도 좋지 않은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표기 체계로서의 향찰에 대한 이해가 그로써 표기된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에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중학교 과정에서의 <서동요>의 이해와 감상 활동이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확대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 요소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동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동요가

---

의 국어교육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중상모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어른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동심의 세계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은 듯하지만, 그 동심의 세계가 순수하다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무왕 이야기 전체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서동요>의 기능을 파악하는 활동을 계획했다면 무왕이 왕이 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었을 것이지만,<sup>4)</sup>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이른바 ‘배경설화’는 실고 있으나 <서동요> 관련 이야기가 어린 시절 서동이 기량난측(器量難測)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는 예화(例話)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학습 활동은 서동의 됃됨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을 속여서까지 사랑이라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가 정당인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동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 곧 신라의 신료들과 국왕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였을까, 서동은 어떻게 자기가 지은 노래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한다고 확신했을까, 서동은 노래를 부른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의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었을까 등등의 의문을 해소해 나갈 때 <서동요>와 서동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조상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를 중심에 둔 소통이 비로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산별곡>은 노래의 아름다움이 실현되고 체험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 자료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sup>5)</sup> <청산별곡>은 일찍부터 고려가요의 백미(白眉)로 평가되어온 작품이지만, 그 함의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다. 무엇보다 해명되지 않은 어휘가 적지 않고 그 창작의 문맥이 복원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작품의 의미 해석을 들

4) 김광숙, 위의 논문 참조. <서동요>의 참요적인 성격, 동요에 대한 신라인의 관념 등을 파악하는 활동도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상)』(주)두산, 2002), 232-235쪽.

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국어교과에서 <청산별곡>은 해석 가능한 작품으로 일찍부터 학습 자료로 쓰고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아울러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이때의 해석 내용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 곧 주제이고 보면, <청산별곡>은 보거나 읽는 이에 따라 그 주제가 달리 파악될 수 있는 작품이 된다.

그런데 만일 그런 작품이라면 애초부터 우리는 <청산별곡>을 매개로 하는 소통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작품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노래를 짓는 주체가 동일 표현으로 사뭇 다른 주제를 전달하려 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선행 연구에서의 해석의 다양성은 관점의 차이보다는 사전적 용례를 찾기 어려운 어휘와 어구에 대한 추정 결과의 차이가 빚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선행 연구는 텍스트를 이루는 어구와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가려는 시도였지, 한 편의 작품을 두고서도 시각이나 관점을 달리하면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이처럼 <청산별곡>에 대한 연구가 작품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이 작품을 현재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룰 만한 작품인지부터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고려가요의 백미라는 평가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명쾌하게 주체가 해명되지 않은 작품이라 해도 국어교과에서 학습 자료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라도 작품의 통일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sup>6)</sup>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청산별곡>을 매개로 하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뜻이 통하지 않는데 <청산별곡>은 음악성을 잘 살린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더욱이 여기에서의 ‘아름다움’

6) 임주탁, 앞의 책, 489-532쪽 참조.

은 미학적 논의의 기본 범주로 인정되고 있는 아름다움 곧 미(美)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고 예술은 아름다움[美]이라는 절대(초월) 가치를 추구한 결과물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문학은 그 자체로 미의 구현체로 간주된다. <청산별곡>이 문학이라는 데 동의하더라도 그 문학은 음악과 결부되어 있다.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 악보의 질서에 맞게 지어진 노래이므로, 그 예술적·미학적 구성 원리는 문자 아닌 소리로 실현되는 상황에 대한 체험 없이는 주관적이거나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청산별곡>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매개로 수용되어 있다.<sup>7)</sup>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미학적 논의에서의 아름다움에 국한한다면 보편미로서의 미가 아니라 특성미로서의 미적 특성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국문학계에서 제기된 특성미에 관한 논의, 예컨대 조동일 교수의 미적 범주론<sup>8)</sup>이나 김학성 교수의 미의식 유형론<sup>9)</sup>은 모두 고정적인 언어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서 이상과 현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언어 텍스트에서 무엇이 이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분석해내지 못한다면 <청산별곡>의 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는 국문학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어떤 관점에서든 작품의 통일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산별곡>을 학습 자료로 하는 학습 활동은 독자적 차원에서의 소통은 물론 미학적 차원에서의 소통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황진이 시조라고 소개한 <어녀 니 일이어

7) 최경진,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미적 범주 수용 비판」(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7) 참조.

8) 조동일,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 문학·예술사상편』 I(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3);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집문당, 1996), 95-144쪽.

9)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미의식 체계론」, 『한국고전시가의 연구』(원광대출판부, 1980, 7-264쪽; 한국학술정보(주), 2003), 9-284쪽.

~> 또한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학습 자료로 수용되어 있다. <어부사시사>는 <청산별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 텍스트의 의미가 분명한 작품이다. 그리하여 그 미적 특성과 구성 원리를 해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sup>10)</sup> 그런데 작가 자신이 미학적 구성 원리를 고려하여 지은 작품인가는 의문은 접어두더라도, 교과서에는 춘하추동의 노랫말을 하나씩만 싣고 있어 정서의 흐름이나 작품의 통일적인 구성 등은 파악할 수 없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어부사시사>는 <만홍>의 마지막 장인 <강산(江山)이 도타 흔들~>이 여음으로 삽입되지 않으면 정서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작가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러므로 ‘구어체의 시어와 다양한 시적 기교’를 살리고 ‘여음구’를 사용하여 ‘흥취를 돋우며 사실감을 부여’하는 작품이라는 해설<sup>11)</sup>만을 가지고는 그야말로 해설 내용을 확인하는 단어반복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다. 학습 활동은 ‘여음구’(?)<sup>12)</sup>가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이때의 아름다움이 미학적 범주로서의 아름다움인지, 일상 언어의 사전적 의미로서의 아름다움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리로 구현되는 언어의 기능을 읽어서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차라리 춘하추동 가운데 하나와 <만홍>의 여음을 함께 제시하여 연형 형태의 노래 또는 시를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하거나 작가의 정신세계를 추체험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다.

황진이의 시조로 소개하고 있는 <어더 니 일이야 ~>는 성종이 아끼

10) 김대행,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외연(外延)과 내포」, 『고산연구』 1(고산연구회, 1987), 1-47쪽.

박옥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 대한 미적 접근」, 『고산연구』 1(고산연구회, 1987), 153-180쪽.

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상)』(주)두산, 2002), 236-239쪽.

12)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 부호를 쓴다.

던 신하 유호인을 떠나보낸 뒤에 지은 작품이라는 문헌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sup>13)</sup> 한 때 황진이 작품으로 간주된 적이 없지 않지만, 현행 국어 교과서가 제작되기 이전에 이미 문헌적 증거는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서동요>에 대한 양주동 박사의 판독과 해독 결과만을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성과를 교육의 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sup>14)</sup>

국문학 연구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널리 인정받은 작품이나 작가를 국어교육의 장에 끌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문학계에서 발견한 문학사적 가치란 것이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된 작품일지라도 학습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학습자의 관점에서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호인이란 인물에 대한 성종의 남다른 애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유호인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등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때 <어더 니 일이야 ~>는 비로소 교육적 활용의 기본 조건을 지니게 된다. 성종의 작품을 황진이의 작품으로 소개하여 그 소통의 문맥을 왜곡하고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학습 목표가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글이든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학습 목표는 다른 방향에서 설정될 수 있지만, 어떤 목표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3) 임주탁, 앞의 책, 394-396쪽 참조.

14) 그러한 사례는 정지상 <송인>의 ‘송군남포(送君南浦)’를 ‘남포로 임 보내니’라고 번역한 것을 싣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포’는 그 자체가 이별이 일어나는 공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라 목적지가 될 수 없다.

정지상의 <송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sup>15)</sup> <송인>은 조선시대 여러 문인 학자들에 의해 절창(絶唱)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다. 그런 까닭에 국문문학 중심의 문학 연구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에도 이 작품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이 어떤 문맥에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여러 문인 학자들이 왜 그토록 호평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혹자는 인간 보편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이라든가 기발한 착상을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추정 결과일 뿐이다. ‘군(君)’으로 표현된 이별의 상대가 과연 누구이며, 그가 무엇 때문에 남포에서 떠나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이 가졌을 정서의 폭과 깊이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16)</sup> 이처럼 창작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운 작품을 매개로 시인의 정서에 공감할 한다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학습 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sup>17)</sup>

<어부사시사>가 시조(?)의 백미라면 <관동별곡>은 가사의 백미로 평가받아온 작품이다.<sup>18)</sup> 특히 <관동별곡>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일찍부터 국어 교과서에 수용되어 왔다. 하지만 <관동별곡>에 쓰인 아름다운 우리말이란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그 말을 배운다손 치더라도 오늘날에 그와

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하)』((주)두산, 2002), 227쪽.

16) 아무리 이별이 많고 이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많다 한들 대동강물이 그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발상은 기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송인>은 정지상이라는 시인의 됄됨이를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7) 따지고 보면, ‘절창’이라는 평가의 준거가 무엇인지도 해명되지 않았고, 평가 주체의 사상적, 세계관적 기반이 어떠한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어떤 문맥에서 <송인>을 고평했는지가 해명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절창’이 과연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인지도 알 수 없다.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하)』((주)두산, 2002), 228-239쪽.

같은 말들을 다시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문맹률을 낮추는 교육이 지배적일 때, 문학은 자기 언어의 표현 능력과 묘미를 풍부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미국의 작가들이 미국 영어의 표현 능력과 묘미를 한껏 보여주었듯이, <관동별곡>이 우리말의 표현 능력과 묘미를 한껏 보여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관동별곡>은 당대 우리말의 표현 능력을 높이고 우리말의 묘미를 느끼는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관동별곡>의 언어와 오늘날 국어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관동별곡>에서 보여준 송강의 우리말 표현 능력과 우리말의 묘미에 일찍부터 주목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 연구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sup>19)</sup> 또 그보다 앞선 시대 홍인우의 <관동록>은 정치적, 사상적 계파를 뛰어넘어 앉아서 금강산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sup>20)</sup> <관동별곡>이 그러한 평가까지 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관동별곡>이 우리말과 글로써의 표현 능력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당대의 언어적 표현 능력의 최고 수준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관동별곡> 또한 <송인>처럼 후대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고평되었던 작품이다. 근대 이후의 연구 결과도 그러한 고평을 되풀이한 것이 사실이다.<sup>21)</sup> 하지만 이미 언어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시대에 우리말의 표

19) <관동별곡>을 매개로 표현교육의 이론(묘사론)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는 없지 않았다. 염은열, 「표현교육의 자료로 본 <관동별곡>」,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2000), 311-337쪽의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언어체의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당대 혹은 후대의 문인들에 의해 <관동록>은 금강산 묘사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다. 이들의 평가는 심경호, 『산문 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이가서, 2007), 179-197쪽에 갈무리되어 있다.

21) 권두환, 「송강문학의 특질」, 『인문학지』 9(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현 능력이나 우리말의 묘미를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적 의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없을 수 없었다. “목적(目的)과 추구(追求)와 방황(彷徨)과 회귀(回歸)라는 인간 생명의 보편적 역정(歷程)에 대한 내적 체험의 기록”<sup>22)</sup>으로 읽자는 새로운 제안은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관동별곡>은 과연 보편적 공감이가 가능한 작품인가, 작가가 <관동별곡>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인간 생명의 보편적 역정”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관동별곡>은 통일적인 작품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 등등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송강이 <관동별곡>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자 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직도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관동별곡>에 대한 고평은 특정한 정치적 계파에 연루된 인맥을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 언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편적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런데 현행 국어 교과서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자 학습 활동의 중심 내용은 엉뚱하게도 <관동별곡>이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의 미’ (송고? 우아?)가 많이 나타나는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언어’라는 단원의 소단원인 <관동별곡>에 특성미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학적 범주들을 소개해 놓고 학습 활동 또한 일부 구절을 중심으로 특성미를 나타내는 미학적 범주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채워놓았다. 그것도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등을 가지고 학습한 ‘아름다움’과는 사뭇 다른, 특성미로서의 미학적 범주의 개념 틀로써 <관동별곡>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감동’, ‘아름다움’, ‘미학적 범주’와 같은 내용들이 <관동별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르게 써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201-209쪽 참조.

22)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관동별곡」 평설」, 『국어교육』 18-20 합병호(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2-57쪽.

판가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동별곡>을 매개로 하는 소통은, 설령 어휘를 풀이해 주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언어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한 주제 파악이다. 어떤 관점과 방법론을 동원하든 간에 동원한 관점과 방법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언어 텍스트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된 고전시가는 일차적으로 주제 파악이 어려운 작품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주제 파악이 될 수 있는 작품의 경우에도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록 국문학계 혹은 국문학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작품이라고 해도 모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가 가지는 가치의 문제를 우선 제쳐 두더라도 언어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전시가는 국어교육의 장에서 점점 더 배제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은 국어국문학의 연구 성과를 배우고 익히는 교과로 한정할 수 없다. 물론 교양으로서의 국어지식과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국어국문학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어교과는 기본적으로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지원하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든 간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서 국어교과의 학습 자료가 되기에 현행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이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소통이 어려운 문제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교수나 학습의 주체한테 있다기보다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주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충분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작품과 미학적 이론의 내용을 끌어들이는 것은 고전시가에 대한 혐오감(?)만 가중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 3. 고전시가 수용에 대한 대안적 논의

고전이란 말은 시간 개념만이 아니라 ‘글의 모범’이란 의미를 아울러 함축한다. 모범이 되는 글은 형식만이 아니라 정서와 사교의 측면에서도 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고전시가’란 과거의 시가 유산 가운데 모범이 되는 작품을 일컫는 말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의 장에서 우리는 과거의 시가 유산이면 모두 고전시가라고 불러왔다. 물론 과거의 시가 유산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도요 과정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발견한 가치의 내용이 문학사적 가치나 문학성 혹은 작품성이라는 미학적 가치에 국한되어 온 듯하다.

그런데 이 두 측면에서의 가치는 근대 학문이 부여한 것으로 그 실체가 모호하다. 문자 해독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던 국어교육에서 시가 유산은 문학의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졌다. 우리말 노래 중심의 역사로 문학사가 서술되었던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서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시가 유산이면 교육의 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를테면, <황조가>는 비록 한역되어 전하기는 하지만 최초의 서정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망매가> 등 이른바 10구체 향가 작품들은 가장 완성된 형태의 향가로서 최초의 우리말 정형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철의 가사 작품과 윤선도의 시조 작품은 가사와 시조의 정점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문자 해독에 초점이 두어진 까닭에 고전시가를 활용하는 국어교육은 자구 해석이 기본 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자구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작품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치는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자구 해석과 문학사적 가치가 매개 없이 결합됨으로써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문학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망매가>, <청산별곡>, 황진이 시조 작

품 등은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면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었고, 따라서 국어교육의 장에서도 학습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학성 논의는 문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이미 교육의 장으로 흡수된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논의로 집중되었다. 더욱이 이렇게 찾아진 미학적 특성은 대부분 이미 서구의 문학에서 찾아진 것이었다. 결국 문학성 논의는 추상적인 미학 이론의 내용을 재론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문학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미학적 접근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런 이론 내용에 기대지 않고 언어 텍스트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연구자는 미학적 이론에 무지한 연구자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고전시가의 창작 주체는 서구에서 수입된 미학적 이론을 숙지하고 그 원리에 맞게 작품을 짓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미학적 논의의 상당한 부분이 동양의 문학 특히 중국의 문학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도 감추어졌다.

문학성에 대한 논의의 내용은 거름 장치나 과정 없이 국어교육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중등 교육과정의 국어교과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반성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국어교육과의 교수진을 구성했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교과교육’이란 용어가 부각되면서 독서와 작문, 화법을 전공한 교수들만이 교과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국어국문학자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터인데 우리말과 글을 매개로 하는 독서, 작문, 화법의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가 별도로 생겨난 셈이다. 그런 이론 역시 문학에서의 미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수입된 것임이 분명하다. 수입 이론이란 우리말과 글에서 발견한 이론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 이론들은 국어교육을 우리의 말과 글을 유럽의 언어나 미국의 언어를 쓰듯 쓰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국어교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고전시가는 더더욱 소통의 능

력을 기르는 장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미학적 이론의 내용을 학습하는 도구로서의 고전시가의 매력은 고집한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국어교육이 미학적 이론 내용을 학습하는 장이 될 때 굳이 축자적 차원에서부터 이해가 어려운 고전시가를 활용할 까닭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미학 이론 내용에 대한 학습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가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읽어내는 능력,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된다면 고전시가의 교육적 활용 가치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자면 고전시가 연구 성과에 대한 깊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고전시가 연구는 국문학 연구의 선두 주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초창기의 국문학 이론은 고전시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의 이론을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전시가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론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진실로 유용하다고 손꼽을 만한 것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문학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는 다른 차원의 언어라는 검증되지 않은 관념이 지배하면서 난해한 미학 이론을 수용하였지만, 정작 그런 미학 이론의 배급처 역할을 했던 미국에서 미학 이론에 바탕을 둔 문학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일이다.<sup>23)</sup>

실증주의와 역사주의가 우세하던 시기에 문학 연구가 작품의 분석과 해석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작품 해석이 직관에 기초한 인상 비평이 주류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방법들은 작품이 놓이는 문맥을 재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 장에 들어오는 언어 텍스트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현실적 문맥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때 소통 매개로서의 역할 비중이 높아진다. 역사적, 현실적 문맥을 배제한 비평

23) *Teaching Literature · What Is Needed Now*, edited by, James Engell and David Perki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적 접근은 고전시가를 비롯한 고전문학과 현대의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듯하지만, 실제에서는 그 간격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 면도 없지 않다. 미학적 이론을 구성하는 비평적 언어의 난해성이 오히려 작품의 이해를 가로막거나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언어 텍스트는 작가가 있고 그것을 통해 드러내어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의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고전시가를 매개로 하는 소통의 문제는 문학 교과서로 관심을 돌릴 때 한층 더 심각해진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문학 교과서에 자주 수록되는 송강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관동별곡> 이상으로 호평을 받아온 고전시가 작품이다.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은, 말하자면 <사미인곡>의 속편이다. 비슷한 정서와 사고를 드러낼 요량이라면 <사미인곡>은 본디 자신의 의도에 꼭 맞지 않은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미인곡>은 작가 스스로 부족한 작품으로 여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미인곡>으로는 표현해 내지 못한 정서와 사고를 드러낼 요량이었다면, <속미인곡>은 <사미인곡>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속미인곡>에 대한 연구는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레고리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이고, 대화 형식을 빌린 까닭은 무엇이며, 또 대화 주체들의 발화의 시작과 끝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작중 인물의 생각과 작가의 생각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해 명정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미학 이론을 도입하여 여러 연구자가 분석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랐다.<sup>24)</sup> 알레고리와 대화체를 썼다

24) 서수생, 「송강가사 신고-새로 발견된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집』 2(경북대학교, 1958), 1-42쪽; 정재호, 「<속미인곡>의 내용 분석」, 『국어국문학』 79·80(국어국문학회, 1978), 159-182쪽; 최성침, 「가사에 나타난 대화체론」, 『국어국문학 논문집』 12(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83), 105-122쪽; 김광조, 「조선 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 연구 - 시적 담화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와 대화체를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명징한 해답을 찾을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속미인곡>은 소통의 능력을 기르는 학습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작품은 여러 문학 교과서에 서로 다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증주의나 역사주의의 방법을 활용하면 의문을 푸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듯하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학적 이론을 적용하는 데 쏠려 있었던 것이다.

<속미인곡>을 비롯하여 송강의 가사 작품은 국문학계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작품 연구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결과가 국어교육의 장에 수용되기에 적지 않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작품들의 사정은 어떠하겠는가? 교육의 장에서 소통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전시가 연구를 통해 마련된 이론들 또한 소통의 매개나 소통의 기초가 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고대가요 혹은 고대시가는 번역하여 전한다거나, 주술적 집단적 시가에서 개인 서정시로 변천되었다거나,<sup>25)</sup> 향가는 신라 지배층 혹은 지식인층이 만들어낸 정형 시가라든가, 고려가요는 민중적이고 민요적인 노래가 유전되다 궁중 문화로 수용되었다거나,<sup>26)</sup> 경기체가와 시조는 고려 말기의 신홍 사대부 집단이 만들어낸 정형시라든가 하는 이론의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가설 차

---

석사학위논문, 1987); 조세형, 「송강가사의 대화전개방식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서영숙, 「<속미인곡>과 <성산별곡>의 대화양상 분석」, 『고시가연구』 23(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85-105쪽; 이유진, 「<사미인곡>·<속미인곡>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문학치료연구』 7(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145-168쪽; 양희찬, 「<속미인곡(續美人曲)>의 진면목(眞面目)」, 『고시가연구』 23(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267-291쪽.

25) 이 의문과 관련한 논의로는 오경옥, 「고대시가 단원 재구성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을 참조할 것.

26) 이 의문과 관련된 논의로는 임주탁, 앞의 책, 79-124쪽을 참조할 것.

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어교육에서는 ‘문학사적 지식’으로 일찍부터 수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문학사에서 다루어지는 고전시가 작품들은 연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되었고, 그 가치는 교육의 장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제 근본에서부터 반성해 보아야 한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이론이 지식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증은 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쪽과 고전시가를 연구하는 쪽 모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가 교육의 장에서 소통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의 장에 수용된 연구 결과가 합리적인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학습자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한 텍스트와 미학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전시가를 포함한 고전문학이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차지할 입지점은 지금보다 한층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고전시가와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과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이론적 모색 또한 적지 않게 시도되었다.<sup>27)</sup> 이러한 시도는 고전시가가 교육적 가치를 증명하거나 학습자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전시가가 교육적 가치(내재적이든 외재적이든)를 가진다는 전제를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한 전제는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든,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 텍스트

27) 권오경, 「고전시가문학 텍스트의 교육 패러다임 모색」, 『어문론총』 32(경북어문학회, 1998), 1-12쪽;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월인, 2001);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07(한국어교육연구회, 2002), 13-30쪽; 최혜진, 「고전시가교육과 문화 콘텐츠」, 『고전문학과 교육』 11(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71-93쪽; 류수열, 「고전시가의 교육적 구도와 성층」, 『한국언어문학』 66(한국언어학회, 2008), 147-171쪽; 김현정, 「고전시가의 가치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의 고찰」, 『국어교육』 125(한국어교육학회, 2008), 467-499쪽; 권정은, 「문화교육과 고전시가의 맥락적 정보」, 『새국어교육』 79(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5-24쪽.

트를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시가 연구자는 물론 시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국어교육에서 활용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있음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길을 마련해 가야 한다. 그렇다고 ‘가치’의 개념을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령, 정철의 <관동별곡>은 홍인우의 <관동록>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인식의 내용과 깊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두 사람의 됬됨이도 비교해 볼 수 있다. <관동록>의 작가 홍인우는 관동, 특히 금강산 체험을 통해 공자(孔子)와 주자(朱子)가 ‘등고(登高)’를 통해 발견했다는 진리와 가르침의 진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생명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비로봉을 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 비해 송강은 <관동별곡>에서, 비록 관찰사로 부임해가는 현실적인 이유 탓도 있지만,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않고도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자만심을 던지지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자만심은 <관동별곡>의 여기저기에 묻어나고 있다. 여산(廬山)을 가보지 않고도 금강산에서 여산의 진면목을 본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仙人)인 듯이 과장하며 자신을 매개로 자기가 지나는 여정이 모두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덕화가 미치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8)</sup> 실제로는 범죄 행위가 빈번한 지역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찰사로 막 부임해가는 도중에 있으면서도 관동 지역을 갈등과 범죄가 없는, 아름답고 문화적인 지역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송강의 됬됨이는 물론 <관동별곡>을 통해 송강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반의적

28) “明月이 千村萬落에 아니 비취 더 엷다”라는 진술은 군주의 은혜가 천지사방에 골고루 내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서, 자신이 관찰사로서의 소임을 완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 독백과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송강은 그런 자신의 의도를 애써 감추면서도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송강의 면모는 <속미인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알레고리와 대화의 차용은 작가의 의도를 감추면서도 드러나게 하는 표현이다. 시비를 피하면서도 내면의 불만을 한껏 드러내는 길을 송강은 즐겨 사용한 것이다.

고전시가를 매개로 하는 소통은 따지고 보면 표현 주체의 사람 됨됨이를 가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시가를 비롯한 문학 교육이 미학 이론의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생겨난 가장 큰 맹점의 하나는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이 작품을 창작한 주체인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학사적 가치나 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경우에도 창작 주체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비단 국어교육에서만 아니라 고전시가 연구에서도 창작 주체로서의 역사적 현실 속의 인간의 면모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남긴 작품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연구 활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가와 작품을 분리하는 경향은 수용 주체의 비중을 강조하는 미학 이론이 수용되면서 한층 확대 강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학 작품의 경우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일차적인 소통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된 셈이다. 소통이 중요하지 않다면 소통 능력을 기르는 국어교육에서 문학이 자리할 여지는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고전시가를 비롯한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서 수용미학의 수용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수용을 강조하려는 본디의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의의를 약화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전시가 작품 중에는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작가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작품을 창작한 문맥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작가적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게 전

하는 작품도 적지 않다. 작가적 정보나 언어 텍스트를 이루는 어휘적 정보가 빈약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작품에 대한 연구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고전시가 연구의 현주소를 짐작케 한다. 언어 텍스트가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지적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언어는 문법 곧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규칙은 연구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전시가 연구가 국어사적 지식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고전시가 연구에서는 국어학자들이 복원하고 있는 고대, 중세 국어의 문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확대되어 왔다. 국문학 연구 초기 학자들의 상당수는 문학(고전문학) 연구자인 동시에 국어학 연구자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국어학과 국문학은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어학은 국어학대로 국문학은 국문학대로 수입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국어학을 통해 확인한 ‘국어지식’과 국문학을 통해 확인한 ‘미학 이론’은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늘어났고, 급기야 ‘문법’과 ‘문학’이 소통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는 의문도 제기된 것이다. 작가는 추상문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표현 능력을 확대시켜온 것인데, 국어학자는 기존의 용례는 인정하고 새로운 용례는 인정하지 않고 국문학 연구자는 문학 작품의 언어가 추상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확산되면 될수록 국어교육의 장에서의 고전시가의 소통 매개로서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전시가가 소통의 능력을 기르는 매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보거나 읽는 행위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를 풍부하게 마련하는 일이다. 일찍부터 고전시가 작품의 주석 작업이 연구의 기초로서 활발하

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문학사적 서술 이외의 국문학 초기의 연구는 주석 작업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석 작업이 이루어진 고전 시가 작품 가운데 텍스트를 이루는 어휘의 주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수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자의 이론적 논의의 토대가 된 텍스트를 정확하게 어떻게 읽었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국어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그런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학 이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분 부분을 인용하거나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려는 핵심 의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언어 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연구의 전제 조건으로 이미 갖추어졌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정인지의 ‘용비어천가 전(箋)’은 고전시가 주석 작업의 수준과 범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는 연구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지식이나 이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다. ‘고전시가의 역사적 흐름’이나 ‘고전시가의 구도’는 무수한 공백 메우기를 위한 시도로서, 불가피하게 많은 비약과 상상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미학 이론이 적극 수용되면서는 고전시가의 비평적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의 고전시가를 매개로 다양한 미학 이론들이 소개되었다. 이렇게 제시된 가설이나 이론들은 고전시가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설이나 이론의 대부분은 비판과 검증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서로 다른 미학 이론을 선호하는 연구자 사이의 학문적 소통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교과서 제작진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설과 이론이 선별적으로 국어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졌고, 모호하고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습서나 참고서가 필요했다. 심지어 자습서나 참고서가 소통 능력

을 평가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형편이 되었다.

셋째, 연구의 주체와 교육의 주체 사이의 상호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일이다. 교육의 장에서 소통되는 연구가 되고 연구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교육이 될 때 국어교육은 소통 능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 주체의 독서 경험의 폭을 넓히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고전시가를 비롯한 문학은 작가의 정서와 사고를 드러내고, 작가의 정서와 사상은 그의 지식과 교양, 시대에 통용되는 문화 관습 등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가 쓴 글에서 정서와 사상을 꿰뚫히게 이해하는 데에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작가의 언어 관습, 작가가 속한 시대의 역사, 작가가 공유 하였던 철학 사상 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없이 고전시가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감정이나 생각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간여하기 때문이다. 문학 교육이 문화 교육이 되고 상상력과 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은 문학이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 4. 결

이상에서 국어교육의 장에서 고전시가 작품이 소통의 매개로 기능하는 길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

---

29)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학습 목표를 설정하든 간에 한 편의 글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국어 수업에서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현행 국어 교과서에서와 같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을 전제하거나 생략하고서 부분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만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소통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록된 고전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의 전제가 되는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해당 작품들은 언어 텍스트 자체가 부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거나(<서동요>, <청산별곡>, <어더 니 일이야~>, <어부사시사>), 비교적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더라도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해설이 없을 뿐 아니라(<관동별곡>) 작품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국어교육의 주체, 특히 교과서를 제작하는 주체가 고전시가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과정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고전시가 연구 주체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국어교육의 장에서 고전시가 작품이 학습자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기여하기 위해 고전시가 연구자와 국어교육에 간여하는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 글은 고전시가 작품을 학습 자료로 하는 학습 활동의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았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학습 자료인 언어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전시가 작품이 학습 자료 곧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행위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문학)교과서의 제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권두환, 「송강문학의 특질」, 『인문학지』 9,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201-209쪽.
- 권오경, 「고전시가문학 텍스트의 교육 패러다임 모색」, 『어문론총』 32, 경북어문학회, 1998, 1-12쪽.
- 권정은, 「문화교육과 고전시가의 맥락적 정보」,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5-24쪽.
- 김광조, 「조선 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 연구 - 시적 담화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대행,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외연(外延)과 내포」,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1-47쪽.
-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 - 「관동별곡」 평설」, 『국어교육』 18-20 합병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2-57쪽.
-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07, 한국어교육연구회, 2002, 13-30쪽.
-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부, 1980, 7-264쪽; 한국학술정보(주), 2003, 9-284쪽.
- 김현정, 「고전시가의 가치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의 고찰」,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467-499쪽.
- 류수열, 「고전시가의 교육적 구도와 성층」, 『한국언어문학』 66, 한국언어문학회, 2008, 147-171쪽.
- 박옥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 대한 미적 접근」,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153-180쪽.
- 서수생, 「송강가사 신고-새로 발견된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집』 2, 경북대학교, 1958, 1-42쪽.

- 서영숙, 「<속미인곡>과 <성산별곡>의 대화양상 분석」,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85-105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상)』, (주) 두산, 2002.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고등학교 국어(하)』, (주) 두산, 2002.
- 심경호, 『산문 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179-197쪽.
- 양희찬, 「<속미인곡(續美人曲)>의 진면목(眞面目)」, 『고시가연구』 2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267-291쪽.
-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2000, 311-337쪽.
- 오경옥, 「고대시가 단원 재구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유진, 「<사미인곡>·<속미인곡>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문학치료연구』 7,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145-168쪽.
- 임주탁, 『옛 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9.
- 정재호, 「<속미인곡>의 내용 분석」, 『국어국문학』 79-80, 국어국문학회, 1978, 159-182쪽.
- 조동일,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 문학·예술사상편』 I,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3;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 집문당, 1996, 95-144쪽.
- 조세형, 「송강가사의 대화전개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최경진,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미적 범주 수용 비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성침, 「가사에 나타난 대화체론」, 『국어국문학 논문집』 12,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83, 105-122쪽.
- 최혜진, 「고전시가교육과 문화 콘텐츠」, 『고전문학과 교육』 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71-93쪽.
-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Teaching Literature · What Is Needed Now*, edited by, James Engell  
and David Perki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Abstract>

## Forwar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Researchers and Teachers in the Field of Korean Classical Poetry and Song

Yim, Ju-Tak

This paper aims to cultivate how teacher and students communicate their own thoughts about Korean Classical poetry and song each others in class of Korean education of highschool course.

For it, I scrutinize if they are able to understand the lingual texts of Korean Classical poetry and song, texts put in the textbooks, for appreciating their meanings. As the result, there is no work which meaning is sufficiently understood by teachers and students by themselves. So teacher and students could not find ways in which they have their own thoughts about those works; *Seodong-yo*, *Cheongsan-byeolgok*, *Eobusasi-sa*, and etc.

I find out that the reason is as follows; (1) researchers who have studied the same work have seldom communicated their own thoughts each others. (2) researchers and course-makers have not understand each others.

Thus, I propose the way in which teacher and students communicate their own thoughts about Korean Classical poetry and song each others in class of Korean education like this; (1) We should seek more textbooks of Korean Classical poetry and song, which meanings teachers and students could appreciate by themselves. (2)

Not only researchers but also teachers should try to verify all the assumption or theories which have been cultivated in the field of Korean Classical poetry and song. (3) All the subjects who are related to it have to broaden the way in which they communicate their thoughts each others.

Key Words : Korean Classical poetry, Korean education, mutual understanding, *Seodong-yo*, *Cheongsan-byeolgok*, *Eobusasi-sa*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5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